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海東(해동) 六龍(육룡)이 노르샤 :일:마다 天福(천복)이 사:니, ④古聖(고성)의 同符(동부)하시니.

(제1장)

(가) 불·휘 가·픈 ⑤남·군 ⑥브·른·매 아·니 :말·씨 꽃 :도·코 여·름 하·느·니

④:시·미 가·픈 :므·른 :그·무·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른·래 :가·느·니

(제2장)

(나) 천세(千世) 우희 미리 정(定)하산 한수(漢水)북(北)에 누인개국(累仁開國)하샤 복년(卜年)이 굿 업스시니 정신(聖神)이 니스샤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샤샤 더욱 구두시리이다. ⑥남금한 아르쇼셔 낙수(洛水)에 산행(山行) 가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125장)

- '용비어천가' 중에서

1. 위 글을 읽고 중세국어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㉔의 조사 '이'는 앞의 체언이 비교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군.
- ② ㉔의 형태소를 분석할 때, 중세국어 체언 중에는 조사와 결합할 때 'ㄱ'이 덧붙는 체언이 있군.
- ③ ㉔의 '에'는 앞의 체언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게 하는 조사이군.
- ④ ㉔에는 현대국어의 '이'에 해당하는 주격조사의 형태가 드러나는군.
- ⑤ ㉔의 '하'는 평칭 호격조사로 현대국어에서는 '-이여'로 풀이될 수 있군.

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권유하는 어조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중국 성왕의 사례를 견주어 건국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수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읽고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워니 아바님씩 상빅

자내 상해 날드려 날오의 둘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흙씩 죽자

하시더니 엇디하야 나를 두고 자내 몬져 가시는 <하락>

- 「이응태 묘 출토 편지」 (1586년)

- ① 16세기의 글이지만 문장 구조는 현대국어와 유사하군.
- ② 주체높임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가 현재까지 계속 쓰이고 있네.
- ③ 부부 사이에 사용하는 호칭이 현재와 좀 다른 것 같아. 요즘엔 보통 '여보'나 '당신'으로 부르지.
- ④ 감탄문의 형태를 통해 자신만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뜬 남편에 대한 원망과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 ⑤ 목적격조사의 형태를 현재와 비교해볼 때 '의' 소실이 모음조화 파괴에 영향을 주었음을 추측할 수 있어.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랏 :말·쓰·미 ㉡中·동·國·관·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몯·디 아·니·힐·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빅·姓·성·이 니·르·고·져 ·흙·배 이·셔·도 무·츰·내 ㉣제· ·ㅅ·들 시·러 퍼·디 :몬·흙 ㉤노·미 하·니·라 ㉥내 ㉦아·를 爲·왕·하·야 ㉧어·엿·비 나·겨 ·새·로 ·스·믈·여·들 字·종·를 밍·그·노·니:사·름:마·다 :히·여:수·비 나·겨 ·날·로 ·뿌·매 便·安·한·크 하·고·져 흙·썩·르·미·니·라

8. <보기>에서 단어의 의미가 변한 예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중세 국어에서 ‘어린’은 ‘어리석은’의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 중세 국어에서 ‘하다’는 ‘많다’의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 중세 국어에서 ‘놈’은 ‘사람’을 의미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 중세 국어에서 ‘어엿비’는 ‘가엿게, 불쌍하게’의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 중세 국어에서 ‘전초’는 ‘이유, 까닭’의 의미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결과’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9. 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世·宗·宗·御·製·訓’ 등 종성에 표기된 ‘ㅇ’은 음가가 없는 것으로 종성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② ‘正·정·音·韻, 中·동·國·국’ 등은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으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③ ‘퍼·디’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ㅣ’모음 앞에서 ‘ㄷ’이 ‘ㅈ’으로 변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④ 글자 왼쪽에 찍힌 점은 방점으로 성조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점의 개수로 소리의 장단을 알 수 있다.
 ⑤ ‘스·뭇·디’에서 ‘스·뭇·’이 아니라, ‘스·뭇·’인 것으로 보아 모든 자음이 받침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0. 위의 자료 ㉠ ~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스’는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와 같은 기능을 한다.
 ② ㉡ : 조사 ‘에’는 현대 국어와 같이 앞말이 사건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③ ㉢ : 현대 국어와 달리 단어의 초성에 서로 다른 두 자음을 나란히 적었다.
 ④ ㉣ : 현대 국어와 비교했을 때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⑤ ㉤ :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이 있었다.

11. <보기>의 내용을 <조건>에 맞추어 서술하시오.

<보기>	
㉠ : 말·쓰·미, ㅁ·츄·내 → 말쓰미, 마침내	
㉡ : ㅍ·뜰·들, ㅍ·뽕·매 → 뜯을, 씹에	
㉢ : 배 → 바가	

조건 : ㉠ ~ ㉢의 변화 양상을 각각 ‘중세 국어에서 ~이/가 현대 국어에서 ~(으)로 변화하였다.’는 형식으로 쓸 것.
 (단, 이어적기는 고려하지 말 것.)

12. 훈민정음의 모음자 중에서 초출자가 아닌 것은?

- ① ㅡ ② ㅏ
 ③ ㅑ ④ ㅣ
 ⑤ ㅓ

13. 훈민정음 모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ㆍ’는 땅의 둥근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② ‘ㅡ’는 하늘의 넓은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③ ‘ㅏ’는 기본자 두 개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④ ‘ㅑ’는 ‘ㅣ’와 ‘ㅓ’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⑤ ‘ㅓ’는 ‘ㅡ’와 ‘ㅑ’와 ‘ㅣ’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14. <보기1>에 대한 <보기2>의 설명 중 적절한 내용
끼리만 묶은 것은?

<보기1>

【원문】

붕어를 등을 타고 천초 싱강 파 기름의 된장 걸러
진꺾죽 햅야 꺾죽 녀허 됴탕햅 씨면 꺾장 유미햅니라.
- 《음식디미방》 1670년 무렵 안동 장씨가 한글로 쓴 조리서

【현대어 풀이】

붕어의 등을 가르고 천초, 생강, 파, 기름에 된장 걸러
밀가루에 즙하여 가득 넣어 중탕하여 찌면 아주 맛이 좋
다.

<보기|2>

- ㉔ 원문에는 관형격조사 ‘의’가 쓰였다.
- ㉕ 원문에는 모음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다.
- ㉖ 원문에는 이중모음이었던 것이 현대에 와서 단모음으로 바뀐 경우가 있다.
- ㉗ 원문에는 합용병서로 표기된 것이 현대에 와서 각자병서로 바뀌어 표기되는 글자가 있다.

-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c, d

15. <보기>의 ㉠, ㉡에 들어갈 적절한 표기를 <조건>에 따라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라졌다.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ㅣ’도, 반모음 ‘ㄹ’도 아닌 모음일 때 ‘ㅣ’가 나타났다. 그런데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ㅣ’이거나 반모음 ‘ㄹ’일 때는 ‘~~〰~~(영형태)’로 실현되어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형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심	(㉠) 기쁜 <u>므</u> 른	샘이 깊은 물은
두리	내해 (㉡) 업 <u>도</u> 다	개천에 다리가 없 <u>도</u> 다

<조건>

- 기본형을 활용하되 <보기>의 현대 국어의 의미가 되도록
조사(助詞)를 추가하여 표기할 것.
- 이어적(接續)기를 하여 표기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나랏말싸미 ②中國國·국·에달아 文文字·중·와로 서
르 ③스몹디 아니홀씨 ·이런 件·조·로 ④어린 百·백·姓·성
이니르·고·저 ⑤홀·배·이·셔·도 ㅁ·춤·내 제 ⑥쁘·들 시러
퍼·디 ·물·홀 ⑦노·미·하·나·라 ·내 ·이·를 ⑧爲·왕·하·야 ⑨어·옛·
⑩너·겨 ·새·로 ·스·물·여·둑·字·중·로·말·7·노·니 ·사·름·마·다
·하·여 ⑪수·빔·나·겨 ·날·로 ⑫뿌·매 便·便·안·한·키 ·하·고·저
홀 ·싸·르·미·나·라.

1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에’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 ② ㉡ : 기본형은 ‘스몯.다’이며 8종성법에 따라 표기하였다.
- ③ ㉢ : 초성에 같은 자음 두 개가 나란히 사용되었다.
- ④ ㉣ : 모음조화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 ⑤ ㉤ :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진 문자가 사용되었다.

17. ㉠, ㉡을 통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정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현	중세 국어의 특징	
㉠	현대국어와 다른 관형격조사가 쓰임.	--㉠
	현대국어와 달리 이어적기가 사용됨.	--㉡
㉡	현대국어와 달리 동국정운식 표기가 사용됨.	--㉢
	현대국어와 다른 주격조사가 쓰임.	--㉣
	현대국어와 달리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함.	--㉤

- ① 가 ② 나
- ③ 다 ④ 라
- ⑤ 마

18. 안의 어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초·로 : ‘까닭으로’의 뜻으로, 현대국어에서 사라졌다.
- ② 어·린 : ‘어리석은’의 뜻으로, 현대국어에서 의미가 변하였다.
- ③ 노·미 : ‘사람이’의 뜻으로, 현대국어에서 의미가 축소되었다.
- ④ 어·엿·비 : ‘불쌍히’의 뜻으로, 현대국어에서 의미가 변하였다.
- ⑤ 뽕·메 : ‘(글을) 쓰다’의 뜻으로, 현대국어에서 사라졌다.

19.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에 따라 ‘ㄱ(아래아)’의 소실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가) ‘ㄱ(아래아)’의 소실 과정

ㅎ믈며 → (1차 소실) ㅎ믈며 → (2차 소실) 하믈며

(나) ‘ㄱ(아래아)’의 소실로 인해 일어난 변화

[중세 국어] 도훈(동+-은), 行行ㅎ야(행ㅎ+-야)

[현대 국어] 좋은(좋+-은), 행하여(행하+-여)

<조건>

- (가)를 바탕으로 아래아의 소실 과정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각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운으로 바뀌었는지 서술할 것.
- (나)를 바탕으로 아래아의 소실로 인해 현대 국어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서술할 것.(단, 모음 체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생략 가능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랏·말쑈·미申·동國·궐·에·달·아·문·문·字·중·와·로·서·르
스·뫼·디·아·니·힐·씨·이·런·전·초·로·어·린·百·백·姓·성·이·니·르·고·
저·훈·배·이·셔·도·무·츰·내·제·쁘·들·시·러·퍼·다·문·훈·노·미·하·
니·라·내·아·를·爲·윙·ㅎ·야·어·엿·비·나·겨·새·로·스·물·여·들·字·
중·를·밍·궐·노·니·사·름·마·다·히·여·수·비·나·겨·날·로·뽕·매·便
편·安·한·키·ㅎ·고·저·훈·새·르·미·니·라

- <월인석보> 권 제1, 세조 5년(1459)

(나) 海東(해동)六龍(육룡)·이·늑·르·샤·일·마·다·天福(천복)·
이·시·니·古聖(고성)·이·同符(동부)·히·시·니

<제1장>

불·휘·기·폰·남·근·부·르·매·아·니·뵈·씨·꽃·도·코·여·름·하·느·니

·사·미·가·폰·므·른·궐·래·아·니·그·출·씨·내·히·이·러·바·르·래·
가·느·니

<제2장>

- <용비어천가>, 세종 29년(1447)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가. ‘ㅂ’계 합용병서와 ‘ㅅ’계 합용병서가 모두 나타나 있다.
- 나.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는 연결 표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 다. 글자의 오른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 라. ‘어·린’과 ‘:어·엿·비’는 현대 국어와 비교해 볼 때 의미의 이동을 겪은 단어들이다.
- 마.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을 사용하여 받침이 없는 한자음에는 종성에 음가가 없는 옛이응과 ‘ㄴ’을 적었다.

- ① 가, 라
- ② 나, 다
- ③ 가, 라, 마
- ④ 나, 다, 라
- ⑤ 다, 라, 마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모두 반치음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가)에 나타나는 여린 하음이 (나)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나)와 달리 (가)에는 특정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달라지는 체언이 등장한다.
- ④ (가)의 ‘스·뫼·디’는 8종성법에 따라 종성의 ‘ㅈ’을 ‘ㅅ’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고, (나)의 ‘꽃’은 8종성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 ⑤ (가)의 ‘:사·름’은 첫 음절은 상성, 둘째 음절은 평성으로 읽었을 것이고, (나)의 ‘기·폰’은 첫 음절은 평성, 둘째 음절은 거성으로 읽었을 것이다.

2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나랏·말싸미'를 보니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ㄴ. '스·믈'은 원순모음화 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형태이다.
- ㄷ. '퍼·디'는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형태로 현대 국어의 '퍼지'에 해당한다.
- ㄹ. '망·ᄃ노·니'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ᄃ-'가 결합되어 있다.
- ㄹ. '쁘·들'의 조사 '을'과 '스·믈여·들字·중·를'의 조사 '를'은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격조사군.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ㄹ

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1) <보기>를 읽고 ㉠에 들어갈 단어를 한 가지만 적으시오.

<보기>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체언 말음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존재하였다. 이들 체언들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나 관형격 조사 'ㅅ' 앞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는 'ㅎ'과 뒤에 오는 조사가 결합하여 'ㅋ, ㅌ'으로 축약되며, 모음이나 매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났다.

현대 국어에서는 대체로 '㉠' 등의 복합어에 화석으로 남고 소멸하였다.

- (2) <보기>를 읽고 ㉡에 들어갈 말을 한 가지만 적으시오.

<보기>

송나라 사신 손목(孫穆)은 고려 말에 관심이 많아, 고려 말을 소리가 가장 비슷한 한자로 기록하여 책을 남긴다. 그렇게 <계림유사(鷄林類事)>에 남겨 놓은 단어에는 '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쌀은 한 글자인데 손목은 '쌀'을 '보살(菩薩)' 두 글자로 적어 놓았다.

그 이유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초기 문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쌀'은 본래 '쌀'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이 여러 개도 올 수 있었고, 손목의 귀에는 첫머리의 'ㅂ'과 'ㅅ' 소리가 모두 들리니 '보살'로 적은 것이다.

이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이 올 수 있었는데, 이를 '㉡' (이)라 한다.

- (3) <보기>에 주어진 <대화>를 읽고, 학생A의 질문에 대해 학생B가 답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보기>

<대화>

학생A : '법씨'는 '벼'와 '씨'가 결합한 말이잖아. 그런데 왜 '벼씨'가 아니라 '법씨'야? 왜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

학생B : _____

학생A : 그렇구나.

(* 학생B의 대답에는 중세 국어 시기에 '씨'가 어떤 형태였는지를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24.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ㄴᄃᄃ샤'와 '天福(천복)·이시·니'에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가 포함되어 있다.
- ② '기·폰'을 통해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재음소화 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ㅂᄃᄃ매'를 통해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ᄃᄃᄃ래'를 통해 마지막 음절이 음성 모음인 어간은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불·휘'는 단모음 'ㄴ'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世·僧宗중御·영製·정 훈·민민正·정음름

나랏 :말싸·미 中·동國·국·에 달·아 文·문·字·중·와·로 서
르 ㉠스·못·디 아·니·힐·씨 ·이런 전·초·로 ㉡아·린 百·백·姓·
성·이 ㉢니·르·고·저 ·흙 ·배 이·셔·도 만·춤·내 제 ·쁘·들
시·러 ㉣퍼·디 ·몬·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를·爲·왕·ᄃ·
야 :어·옛·비 나·겨 ·새·로 ·스·믈·여·들 字·중·를 望·ᄃ·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나·겨 ·날·로 ·쁘·매 便·便·安·안·키
ᄃ·고·저 흙 ·싸·르·미·니·라

- 《월인석보》(권1)에서, 세조(世祖) 5년(1459년)

2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닌 8종성법이 쓰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② ㉡: 지금과는 달리 '어리석은'의 뜻을 지니고 있다.
- ③ ㉢: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④ ㉣: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 ⑤ ㉤: 현대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행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26. <세종어제훈민정음>에 나타난 한글 창제 정신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말이 중국의 것과 다르다는 것에서 자주 정신을 찾을 수 있다.
- ②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불쌍히 여겼다는 것에서 애민 정신이 보인다.
- ③ 이전에 사용하던 글자가 아닌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창조 정신을 볼 수 있다.
- ④ 날마다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실용 정신이 들어가 있다.
- ⑤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쓰게 하고 규칙을 정한 것에서 글자의 통일 정신이 들어가 있다.

27. 훈민정음 창제 이후 일반 백성들의 국어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짐작할 때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자신의 생각을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 ② 글을 스스로 읽는 사람이 생겨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 ③ 사람들이 글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되어 사회가 느리게 변화했을 것이다.
- ④ 글자를 익히게 되어 억울한 일을 관청에 신고하는 일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 ⑤ 자신의 뜻을 펴 수 있게 되어 글을 써서 책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28. <세종어제훈민정음>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에서는 세로쓰기가 일반적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가로쓰기가 일반적이다.
- ②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한다.
- ③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가 널리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끊어 적기가 보편적으로 쓰인다.
- ④ 중세 국어에는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 ⑤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으나, 병자호란 이후 소멸되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해설] ㉔의 ‘하’는 존칭의 호격조사로 대상에 대한 높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는 ‘-이시여’로 풀이될 수 있다.

2) [정답] ⑤

[해설] 용비어천가 제2장은 한글로만 이루어진 장으로 비유와 대구를 통해 조선의 영원을 기원하고 있다.

3) [정답] ④

[해설] ‘몬저 가시논’은 ‘먼저 가셨나요?’로 의문문의 형태이다. 이처럼 글쓰이는 의문문을 통해 자신을 먼저 두고 떠난 남편에 대한 원망과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시논’에서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고, ‘아바님의’에서 주체 높임의 조사 ‘께’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높임 표현은 현재까지 계속 쓰이고 있다. ③ 부부사이의 호칭이 현대 국어에서는 ‘여보’나 ‘당신’이지만, 당시에는 ‘자네’라고 칭하고 있어 현대 국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⑤ 아래아(ㆍ)는 2단계에 걸쳐 소실되었다. 먼저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ㆍ’가 ‘ㅡ’로 변화하고, 이후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ㆍ’가 ‘ㅣ’로 변화하였다. 예외적으로 둘째 음절의 ‘ㆍ’가 ‘ㅡ’가 아닌 ‘ㅣ’로 변화하여 일반적인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양성모음이었던 ‘ㆍ’가 음성모음인 ‘ㅡ’로 변화하기도 하면서 모음조화가 문란해 지기 시작했다.

4) [정답] ⑤

[해설] ㉔ 뒤의 ‘하’는 ㉔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 존칭의 호격 조사 ‘하’이다. ① ‘나라말’의 ‘ㅅ’은 현대국어의 ‘의’와 같은 관형격 조사이지만, ‘나라’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붙은 것이 아니라 무정 명사이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② ㉔의 ‘에’는 현대 국어의 ‘과’와 같이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넌라와 시름 한 나도’의 ‘라와’는 현대 국어의 조사 ‘보다’와 같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는 격 조사이며, ‘~에 비해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㉔의 ‘에’와 차이가 있다. ③ ㉔ ‘제’는 ‘저’에 관형격조사 ‘ㅣ’가 결합된 것이다.

5) [정답] ③

[해설]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 없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존재했지만,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원순 모음화는 양순음 밑에서 ‘ㅡ’가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스믈[>스물]’ 등에서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 [정답] ④

[해설] ㄹ의 ‘-습-’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먼저 여래(를) 뵈고’라는 현대어 풀이를 참고했을 때 ‘뵈다’의 객체는 ‘여래’이므로 ‘-습-’이 높이는 것은 세존이 아닌 ‘여래(如來)’이다. ⑤ ‘븃’이 음성 모음인 ‘ㅣ’ 앞에서는 음성 모음인 ‘ㅁ’, 양성 모음인 ‘ㅏ’ 앞에서는 양성 모음인 ‘ㅓ’로 변화했으므로 모음조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7) [정답] ②

[해설] ㉔ ‘어린’은 ‘어리석다’는 의미가 ‘나이가 적다’로 의미 이동이 되었다. ⑤ ‘노미’는 ‘보통 사람’을 뜻했으나 남자를 낮춰서 부르는 말로 축소되었다. ㉔ ‘어렸비’ 역시 ‘불쌍하게’라는 의미가 ‘예쁘게’로 의미가 이동되었다. ④ ‘영감’은 정삼품과 종이품의 벼슬아치를 이르던 말에서, 나이가 많아 중년이 지난 남자를 이르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8) [정답] ①

[해설] ㉔ 중세 국어에서 ‘ 많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하다’이며, 현대에는 사라진 단어이다. 중세 국어의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㉔ ‘전차’가 ‘이유, 까닭’의 옛말인 것은 맞지만, ‘결과’의 의미로 변하지는 않았다.

9) [정답] ④

[해설]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10) [정답] ②

[해설] ‘둥극에’를 현대어로 해석하면 ‘중국과’이다. ㉔의 ‘에’는 현대의 비교부사격 조사 ‘과’에 해당한다.

11) [정답] ㉔ 중세 국어에서 ‘ㆍ’가 현대 국어에서 ‘ㅡ, ㅣ’로 변화하였다. ㉔ : 중세 국어에서 어두 자음군이 현대 국어에서 된소리로 변화하였다. ㉔ :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 ‘ㅣ’가 현대 국어에서 ‘가’로 변화하였다.

[해설] ㉔ ‘ㆍ’가 소실되면서 ‘ㅡ, ㅣ, ㅣ’ 등의 음운으로 변화하였다. ㉔ ‘ㅁ, ㅁ’같은 어두자음군이 ‘ㅌ, ㅌ’ 등의 된소리로 변했다. ㉔ 중세국어에서 주격조사는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ㅣ’, ‘ㅣ’ 모음 뒤에서는 표기하지 않았다.

12) [정답] ①

[해설] 중세 국어의 중성 11자는 하늘, 땅, 사람을 형상한 ‘ㆍ, ㅡ, ㅣ’를 기본자로 하여, 초출자 ‘ㅏ, ㅓ, ㅕ, ㅗ’와 재출자 ‘ㅑ, ㅓ, ㅕ, ㅗ’로 구성되어 있다. ‘ㅡ’는 기본자에 해당하는 중성으로, 초출자가 아니다.

13) [정답] ③

[해설] ① ‘ㆍ’는 둥근 하늘을 본떠 만들었다. ② ‘ㅡ’는 평평한 땅을 본떠 만들었다. ④ ‘ㅓ’는 ‘ㆍ’와 ‘ㅏ’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⑤ ‘ㅕ’는 ‘ㆍ’와 ‘ㅣ’를 합성한 ‘ㅣ’에 ‘ㆍ’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14) [정답] ⑤

[해설] ㉔ 원문에는 이중모음이었던 ‘천초’의 ‘ㅑ’와 ‘ㅓ’가 현대에 와서 단모음 ‘ㅣ’와 ‘ㅓ’가 되어 ‘천초’가 되었다. ㉔ 원문에는 합용병서로 표기된 ‘찌면’이 현대에 와서 각자병서로 바뀌어 ‘찌면’으로 표기된다. ㉔ 원문 ‘기름의’의 ‘의’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㉔ ‘붕어톨’은 음성모음이 사용된 체언에 양성모음의 목적격조사 ‘톨’이 결합했으므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15) [정답] ㉔ 시미, ㉔ 두리

[해설] ‘심’은 끝소리가 자음인 체언이므로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후 이어지기 하여 ‘시미’가 되고, ‘두리’는 끝소리가 모음 ‘ㅣ’이므로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어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 ‘두리’가 된다.



16) [정답] ③

[해설] ㉠의 'ㄷ'에서는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나란히 사용되었다.

17) [정답] ③

[해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하였다. 한자어 표기에 관한 특징이며, ㉠은 한자가 아니므로 동국정운식 표기와 관련이 없다.

18) [정답] ⑤

[해설] '뿌메'는 기본형 '쁘다'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하고,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한 형태이다. 중세 국어의 '쁘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다'로 변하였으며, 단어의 형태는 변화하였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19) [정답] '아래아'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ㅡ'로 바뀌는 1차 소실이 일어났으며, 첫음절에서 'ㅏ'로 바뀌는 2차 소실이 일어났다. '아래아'의 소실로 인해 중세 국어에서 규칙적으로 지켜지던 모음조화가 파괴되었다.

[해설] 아래아가 소실되기 이전의 중세국어에서는 '도흔', '헝헝야'와 같이 모음조화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지만, 아래아가 소실된 이후에는 모음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20) [정답] ①

[해설] ㄱ. '쁘들', '쓰르미나라'에서 각각 'ㄴ'계 합용 병서와 'ㅅ'계 합용 병서가 드러난다. ㄴ. '어린'은 '어리석다'라는 의미에서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로 이동하였고, '어엿비'는 '불쌍하다'의 의미에서 '예쁘다'라는 의미로 이동하였다. ㄷ. 단어의 소리대로 적는 이어적기의 표기를 사용하였다. ㄹ.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였다. ㄴ. (가)에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로 받침이 없는 한자음에는 종성에 음가가 없는 이음('ㅇ')을 활용하였으며, (가)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는 받침이 없는 글자에 '뉘'이 아닌 '뉘'을 받쳐 적었다.

21) [정답] ③

[해설] 특정 조사와 결합할 때에 그 형태가 달라지는 단어는 '남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근'은 현대 국어로 '나무'는 '인데', '나무'를 의미하는 체언은 중세 국어에서 단독으로는 '나모'의 형태였다.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은'이 오면 'ㄴ'이 떨어져 'ㄱ'이 덧붙고 연음이 되어 '남근',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이 오면 '나모'와 같이 나타났다. (가)에는 이처럼 형태가 달라지는 체언은 드러나지 않는다.

22) [정답] ④

[해설] ㄴ. '스물'은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이고,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면 'ㅡ'가 원순 모음 'ㅜ'로 바뀌어 '스물'이 된다. ㄷ. '퍼디'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의 형태이고, 구개음화가 일어나면 'ㄷ'이 구개음 'ㅈ'으로 바뀌어 '퍼지'가 된다. ㄹ. '을'과 '를'은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목적격 조사로 기능한다.

23) [정답] (1) 머리카락 (2) 어두자음군 (3) 중세 국어에서 '씨'는 'ㅍ'의 형태였기 때문이다.

[해설] (1) 중세 국어에서 '머리'는 'ㅎ' 종성 체언이었으며, '가락'과 합성이 되면서 'ㅎ'과 'ㄱ'이 축약되어 '머리카락'이 된 것이다. (2)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를 어두 자음군이라고 한다. 당시

에는 'ㄷ'과 같은 어두 자음군이 모두 발음이 되었지만, 17세기 즈음에 어두 자음군을 모두 된소리로 변화였다. (3) '씨'는 중세 국어에서 'ㅍ'의 형태였다. '벼'와 결합하면서 어두자음군 'ㅍ'에서 'ㄷ'이 앞말 종성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정답] ③

[해설] '부르매'는 '부름+애'로 분석할 수 있다. 'ㅡ'가 양성 모음이므로, 양성모음 'ㅐ'가 사용된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것이다.

25) [정답] ⑤

[해설] '하나라'는 현대 국어와 달리 '많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6) [정답] ⑤

[해설] 규칙을 정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7) [정답] ②

[해설] 훈민정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글을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한 글자이므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 스스로 글을 읽는 사람이 생기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 훈민정음으로 일반 백성이 문자 생활을 좀 더 쉽게 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반 백성이 글을 써서 책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8) [정답] ⑤

[해설]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병자호란(1637년) 이후가 아니라 16세기 말엽에 소멸되었다.